‘관세 직격탄’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6300억 우대금융

400억원 무보기금 출연…수출공급망 보증
최대 2%p 금리 인하에 보증료율 인하 혜택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손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사 지원에 나섰다.

미국 25%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총 6300억원 규모의 저리 우대금융을 제공해 관세 파고를 넘고 상생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인 디와이오토에서 김정관 장관, 성 김 현대차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 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을 열고 자동차 협력사를 위한 특별 저리 금융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를 지원하는 ‘자동차 협력사 우대 금융(수출공급망강화보증)’ 프로그램은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출연하는 4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가동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을 통해 총 63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다.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래 적용받을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한도 상향, 보증 기간 확대(1→3년), 보증료율 인하(1%→0.65%) 등 우대 혜택도 별도로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도 원래 자금을 빌리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 대상 기업은 하나은행이 제공한 출연금으로 갈음해 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수출 금융 지원의 바탕이 되는 무역보험기금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다. 그간 은행 등 민간 금융 기관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제조기업이 기금에 출연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를 통해 디와이오토, 서진산업, 엔티엠 3개 기업에 1·2·3호 보증서가 전달됐다. 이들 기업에는 무보의 보증을 거쳐 각각 200억원, 150억원, 80억원 등 총 430억원의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성 김 사장은 “최근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금번 수출 금융 상품 신설은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정주영·정몽구·정의선 3代, 글로벌 자동차리더 선정

美 유력매체 100주년 기념상…“세계적 제조 강국 도약”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3대 경영진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에 선정됐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창간 100주년을 맞아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은 매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선정한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낙점됐다.

또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도요다 가문, 메리 바라 제너럴모터스 회장, 빌 포드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단순히 세계적인 자동차기업 최고 경영자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며 “정 창업 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워’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며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보틱스와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에도 진출했다”고 덧붙였다.

오토모티브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 경영진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정 창업 회장은 ‘현대’라는 이름으로 선박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기업을 세웠고, 정 명예회장은 품질을 강화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해 현대차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기아, ‘더 2026 카니발’ 출시…편의사양 확대

기아는 대형 레저용 차량(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형 카니발은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기본 트림부터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형 카니발은 3.5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된다. 기아는 신형 카니발의 기본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전자식 룸미러 등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기 트림인 노블레스에는 멀티존 음성인식, 기아 디지털 키 2 등이 기본적으로 적용됐고,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리어 LED 턴시그널 램프가 기본화됐다.

멀티존 음성인식은 차량이 1·2열 좌우 좌석별로 발화 위치를 구분해 피드백이 가능하고, ‘헤이, 기아’ 명령어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기아는 디자인 특화 트림인 ‘그래비티’의 명칭을 ‘X-라인’으로 변경하고, 블랙 색상의 전용 엠블럼과 다크 그레이 색상의 전용 바퀴덮개를 추가했다.

기아는 신형 카니발의 시그니처 트림부터 보스(BOSE)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 사양으로 운영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금호타이어,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2030년까지 사업장 배출량 42% 감축 등 추진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이하 SBTi)로부터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45 넷제로(Net-Zero)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기구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1.5℃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금호타이어는 SBTi 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직접배출량(Scope 1) 및 간접배출량(Scope 2) 배출량을 42%, 기타 간접배출량(Scope 3)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단기 목표를 수립했으며, 2045년까지 전 가치사슬(Scope 1, 2, 3)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고, 전체 밸류체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글로벌 탄소에너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생산기술총괄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7개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 전력 사용량의 11%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했다. 특히 중국 천진공장은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50% 달성했으며 직접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 추가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5개 사업장에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했다. 정현아 기자 aura@

현대차-한문철TV·토스 ‘SUV 안전 캠페인’ 실시

현대차는 신형 싼타페·투싼, 코나 블랙 익스테리어 출시에 맞춰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싼타페와 투싼, 코나의 향상된 안전 성능을 알릴 계획이다.

먼저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와 연계해 블랙박스 영상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현대 SUV가 지켜준 순간’을 주제로 진행된다. ‘첨단 안전 보조 기능으로 사고를 피한 순간 영상’ 또는 ‘첨단 안전 보조 기능이 필요했던 사고 순간 영상’이라는 주제에 맞춰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홈페이지(https://www.susulaw.com)의 블랙박스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영상을 제보하면 된다. 정현아 기자 aura@